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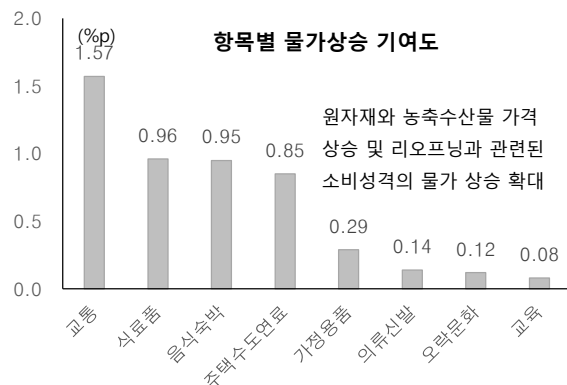


높아진 물가와 수입수요

1. 5월 소비자물가, 전년비 +5.4% 기록

- 한국의 5월 물가는 전년비 +5.4%를 기록하면서 최근 추세 대비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상승률이 기록.
- 교통과 주택수도전기연료 등 원자재 관련 기여도가 높은 것이 확인. 이어 음식숙박, 식료품 등도 높은 기여.
- 현재 5%대의 물가상승률이 기록되고 있지만 아직 고점영역보다는 3분기에도 높은 물가상승률 형성 가능.

원자재와 식료품 및 리오프닝 관련 물가상승률이 다른 품목에 비하여 두드러지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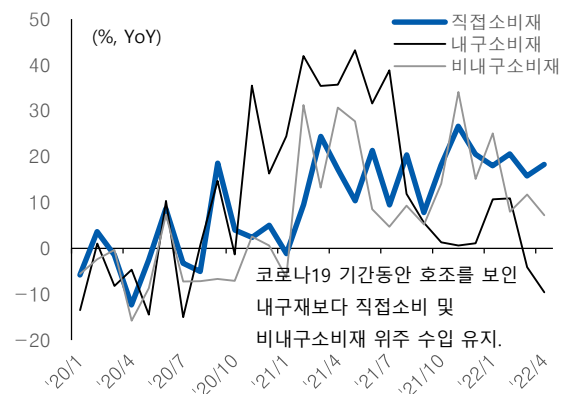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수입수요의 분해

- 실제로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생활의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리오프닝과 관련된 지출이 증가하는데 이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 부분.
- 내구소비재의 수입은 빠른 감소가 진행되었으나 비내구소비 및 직접소비재의 감소폭은 제한. 즉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소비사이클의 회복은 진행중인 것으로 생각.
- 설비투자 방향 측정을 위한 세부 항목으로 볼 수 있는 반도체제조용 장비의 수입증가율은 현재 저점 영역

소비를 이끌었던 내구소비재의 수입은 급격한 감소. 다만 직접 및 비내구소비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자료: 관세청,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5월 소비자물가, 전년비 +5.4%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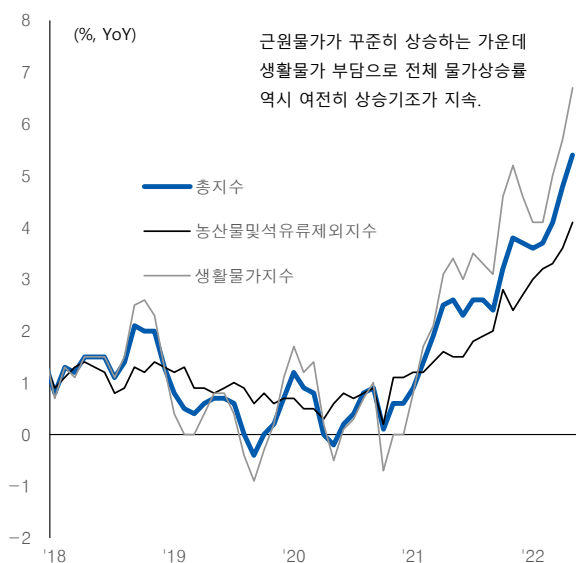
한국의 5월 물가는 전년비 +5.4%를 기록하면서 최근 추세 대비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상승률이 기록된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추세로 볼 때 5% 이상의 물가상승은 예정되어 있는 수준이지만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항목별 기여도로 보면 여전히 원자재가격의 기여도가 높은 이유로 교통과 주택수도전 기연료 항목의 기여도가 높은 것이 확인된다. 이를 제외하면 음식숙박, 식료품 등이 기여도가 높은 상황이다. 결국 최근 리오프닝 관련 수요의 확대에 의하여 높은 물가상승률이 형성된 것이다.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 자체가 높은 상황에 있는 것은 통화당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효한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성장세를 강조할 필요가 있지만 당장의 정책방향은 물가 추이를 확인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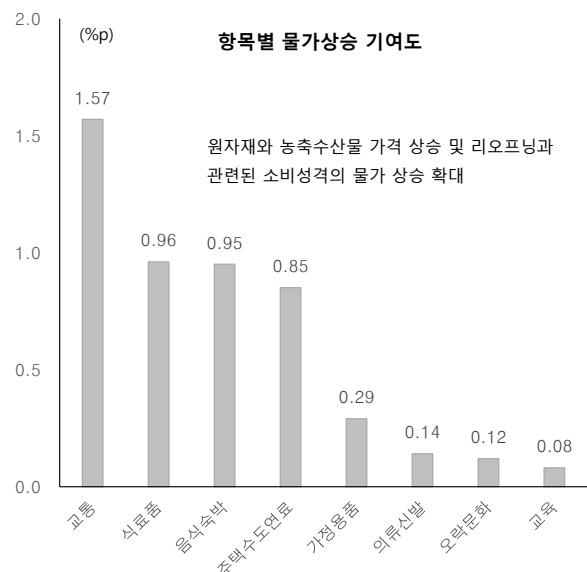
사실 현재 5%대의 물가상승률이 기록되고 있지만 아직 고점영역보다는 3분기에도 높은 물가상승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수요의 강건성보다는 구매력의 둔화에 조금 더 영향력이 높은 수준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차트1] 5월 현재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상승진행중. 증가율 상 고점 영역이나 아직 1~2개월 더 5%대 유지 가능성.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원자재와 식료품 및 리오프닝 관련 물가상승률이 다른 품목에 비하여 두드러지는 경향.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수입수요의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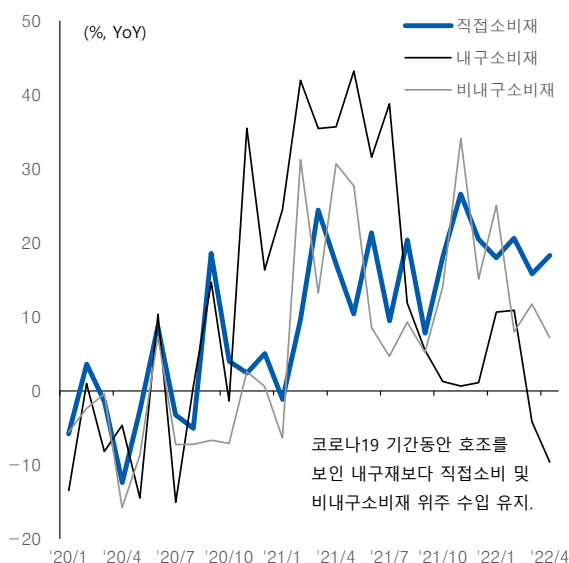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물가로 인하여 구매력이 둔화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입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 이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이유는 수출이 여전히 증가하는 구면이지만 수입증가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질별 수입을 구분해보면 최근 소비경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생활의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리오프닝과 관련된 지출이 증가하는데 이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소비재 수입이 동시에 줄어드는 사이클이지만 내구소비재의 수입은 빠른 감소가 진행되었으나 비내구소비 및 직접소비재의 감소폭은 제한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소비사이클의 회복은 진행중인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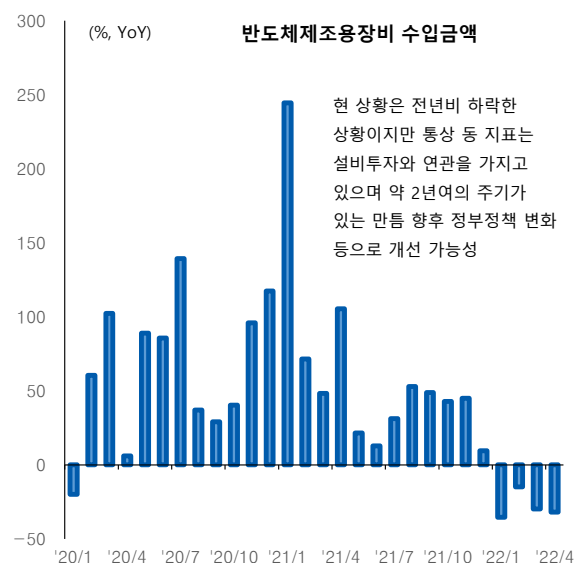
한편 향후 설비투자의 방향을 측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세부항목으로 볼 수 있는 반도체제조장비의 수입증가율은 현재 저점 영역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향후 법인세 인하와 같은 정책적 변화가 이어진다면 설비투자의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다.

[차트3] 그동안 소비를 이끌었던 내구소비재의 수입은 급격한 감소. 다만 직접 및 비내구소비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자료: 관세청,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설비투자과 무관하지 않은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은 여전히 부진하지만 정책공조로 상승모멘텀 전환 가능..



자료: 관세청,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